

전략 없는 전략공천

새정치, 공천된 인물은 문제 없지만 ... 원칙·절차·소통 없어 후폭풍 클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했다. 경기 수원 병(팔달)에는 손학규 삼임고문을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원을(권선)과 수원 정(영동) 후보는 이날 밤 8시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원칙을 지키지도, 소통을 이루지도 못하는 등 리더십에서 난맥상을 보이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략지역으로 정한 광주 광산 을과 수원지역 3개 지역구 후보 공천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광주

광산 을에 공천을 신청한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하고 권 전 과장을 공천하는 데 대해 반대했지만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권 전 과장을 공천할 경우 지난 대선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 부각돼 수도권 등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권 전 과장의 폭로에 대한 진정성과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무소속 출마 카드까지 검토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천 전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권 전 과장의 공천을 축하한다"면서도 "하지만 당 지도부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천정배 죽이기'를 자행했으며 이는 호남 정치를 고사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지난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이

어 광산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서도 지도부가 막판 전략공천을 선택하면서 지역 민심의 눈길도 굽지 않다. 제대로 된 원칙과 절차도, 지역 민심과의 소통도 없이 공천에 나서면서 강운대, 이용성, 천정배 등 지역 인물들을 결과적으로 정치적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전략공천한 인물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의 절차와 원칙은 지키는 것이 호남 민심에 대한 예의"라며 "당 지도부의 연이은 전략공천 결정 과정은 오만과 독선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8일 실시된 새정치민주연합 담양·함평·영광·장성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개호 경선 후보가 51.3%의 지지율로 39.3%를 얻은 이석형 경선 후보를 12% 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7 충격패 ... 브라질의 눈물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던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이 안방에서 자국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참패를 당했다. 9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에스타디오 미네이랑 경기장에서 펼쳐진 '2014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 경기에서 브라질이 독일에 1-7로 대패하자, 이를 지켜보던 브라질 여성과 소년 팬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관련기사 20편 /연합뉴스

7·30 재보선 대전표 윤곽... 곳곳서 여야 '빅매치'

새정치, 광산을 권은희 공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개호 후보 여론조사로 확정



권은희 이개호

| 구분 | 새누리 | 새정치 | 기타 |
|-------------|-----|-----|------------------|
| 광산 을 | 송환기 | 권은희 | 장원섭(진) 문정은(정) |
| 나주·화순 | 김종우 | 신정훈 | |
| 영광·함평·장성·담양 | 이중호 | 이개호 | |
| 순천·곡성 | 이정현 | 서갑원 | 이성수(진) |

*진=진보당, 정=정의당

모두 15곳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 후보등록을 불과 하루 앞둔 9일 주요 예상 격전지의 여야 대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아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4개 선거구에도 새누리당이 모두 후보를 내면서 여야간 대결구도가 만들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하면서 새누리당 송환기 당협위원장, 정의당 문정은 후보 간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관련기사 4면> 순천·곡성 보궐선거의 경우 '차의 남자'

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친노무현계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전 의원이 맞붙은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가세했다. 나주·화순 재선거에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전 나주시장에 맞서 김종우 전 나주동강농협조합장이 출마표를 던졌다. 담양·함평·영광·장성 보궐선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전 전남부지사과 새누리당 이중호 효장산업 대표이사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기동민 전 서울시부시장,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까지 가세해 3파전을 펼치게 됐다.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수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과 경기도지사 출신의 새정치연합 손학규 삼임고문이 지역을 엇갈려 출마한다. 임 전 의원은 애초 경기 평택을 희망했으나 수원정(영동)에 전략공천됐고, 손 고문은 수원병(팔달)에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됐다. 경기 김포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홍철호 전 당협위원장과 아권 대권 예비주자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맞붙는다.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유의동 후보를 확정했고 새정치연합은 3선 의원 출신 정장선 전 의원을 배제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은 10~11일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 17일부터 선거일 직전 자정까지 13일 동안 벌일 수 있다. 사전투표는 25~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담합'

조영표 의장 지지자들 '독식'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 먹기'가 사실상 드러나면서 개별 초반부터 '담합 의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 의장 선거로 양분되면서 향후 전반기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뤄질지 우려된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등록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 주경남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김민중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 김용집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유정심 의원이 각각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조영표 의장에 한 표를 던진 조 의장 그룹이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낙점'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용집 의원만이 뒤늦게 환경복지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애초 환경복지위원회에는 한 여성 의원이 거론됐지만, 의장 선거 막판 조 의장 그룹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 의장 그룹에서 '정치 보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 의장 지지 의원 12명(재선 3명·초선 9명)이 그들을 형성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운영위원장 자리도 초선인 심철의 의원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의회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의회 운영과 집행부와 의 연결고리를 하는 중요한 자리로, 대부분 의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맡아왔다. 반면, 조 의장에서 패한 문상필 의원 측은 9명(재선 4명·초선 5명)의 의원들

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에 단 한명의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의장 그룹인 12명의 의원들이 이미 '담합'을 했기 때문에 경선에 나서라도 이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7대 의회가 시작과 함께 '의장 파'와 '비(非) 의장 파'로 양분되면서 의회가 '진영' 논리에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놓고 '자리나눠먹기' '합숙' '담합' 등 구태정치에 난무한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왔고, 그 우려가 현실이 돼 안 타깝다"면서 "초선들이 의장 선거에 휘말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재선들이 제대로 초선의원들을 이끌지 못할 경우 이제는 시민사회가 시의회를 감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 점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중형급의 표준 연비 및 출력 • C 200 1,991cc, 1,509kg, 자중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9kg, 자중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중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중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중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제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